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정원은 정원사가 씨앗을 뭉뚱뚱 뿌려 놔 썩어 나온 곳만 뒤엎긴 채 열매를 맺었고 뿌려지지 않은 곳엔 새싹조차 돋지 않았다. 제대로 된 정원사의 손길에 미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고 돌아난 열매조차 시들하여 그것을 제대로 먹을 수 없을지 의구심이 든다. 정원을 제대로 가꾸고 노력할 의지가 없는 정원사는 ‘올해 농사가 제대로 안 되면 다음에 다시 하지 뭐’라는 막연하고도 안이한 생각으로 임하기에 정원은 제대로 가꾸지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정원’ (에릭 리우·닉 하나 우어 지음, 김문주 옮김, 2017, 웅진지식하우스)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내용이 다. 우리의 ‘정원’은 어떤 상태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 당신의 정원은 어디입니까?

풍성하고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속한 사회의 풍경을 보노라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오히려 정원의 곳곳이 심각하게 망가지거나 훼손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기해년은 ‘우리의 정원’이 더 황폐하게 될지, 아니면 아름다운 장소로 변모하는 기반을 다지게 될지, 그 흐름이 드러나는 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적 현실을 넘어 보수 정부와 개혁 정부의 중심 이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와 현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가 가능한 시기가 될 것이다. 비정규직, 청년 실업과 고령화, 젠더/페미니즘, 입시 교육, 부동산,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경제 위기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누군가는 이러한 문제들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재 나와 관련된 문제만을 인식하거나 문제 삼는 데 급급한 것도 사실이다. 분명한 사실은 다양한 복잡한 문제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식과는 별개로 개별적인 수준

이 아니라 쓰나미처럼 전면적으로 밀려오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아무리 외면하더라도 결국 나의 문제가 될 것이며, 내 가족의 문제가 될 것이며, 우리 이웃의 문제가 될 것이다.

정원을 제대로 가꾸기 위해서는 ‘정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원사는 국가와 지역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나 도지사·시장 등이 그들일 것이고, 국회의원과 시의원·도의원·구의원 등도 해당될 것이다. 우리의 일상을 상당 부분 결정하고 책임지고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동시에 행정의 영역에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일상의 영역이며 자율의 영역이다. 개인 혹은 커뮤니티의 일상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 정치, 마을 활동, 사회적 경제, 독서, 교육 운동, 인문 활동, 문화, 예술 등 그 범위는 넓고 다양하다. 그들이 바로 또 다른 의미의 ‘정원사’가 되는 것이다.

“훌륭한 정원사는 절대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정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또한 날씨와 환경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맞춰 간

다. 아름다운 정원은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훌륭한 정원사는 흙을 갈아엎고 여러 식물들을 바뀔 때마다 심는다.”

우리의 정원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는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복합적 관점과 더불어 구체적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오늘날 정원사는 ‘날씨’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건강한 수많은 정원사들이 많이 등장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건강한 개인이 많아져야 한다. 건강한 개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정원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해하는 역량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신체를 갖고 있는 이들이다.

이제 우리는 자문해 봐야 한다. ‘나의 정원은 어디인가?’ 그 정원을 가꿀 생각은 하지 않고 정원사만 육하고 돌만 던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물어야 한다. 이제 ‘우리의 정원’에 쓰레기를 버리고 돌을 던질 게 아니라 팔을 걷고 신발을 벗고 그 정원에 들어가서 잡초를 제거하고 들뜸을 속아 내는 정원사가 되어야 한다. “사회는 당신이 행동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 社說

### 협상 실패 혈세 낭비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

광주시가 주요 민간자본유치사업(이하 민자사업)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매번 협상에 실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까운 시민 혈세를 쏟아붓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2순환도로 운영사인 ‘맥쿼리 한국 인프라투융자’(이하 맥쿼리)와의 협상이다. 광주시는 민선 6기에 맥쿼리와 체결한 재정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협약 변경에 나섰지만 오히려 지원금이 늘어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시는 협상에 나서면서 1014억 원의 재정 지원금을 줄일 수 있다고 했지만 결과는 최근 3년간 오히려 19억 원이 늘었다. 재정 지원금을 놓고 벌인 맥쿼리와의 1·2심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시가 먼저 재협상을 요구했다가 협상 실패로 혈세를 더 쏟아붓게 된 것이다.

혹을 때려다 더 큰 혹을 붙인 결과를 낳은 것은 전문가로 무장한 민간사업자에 비해 광주시는 아마추어 공무원이 협

상 테이블에 앉았기 때문이다. 맥쿼리 측은 금융·인허가 등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역시 민간 사업자 대상 공모, 평가, 협상에서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자 반복이라는 초유를 사태를 겪기도 했다.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은 아니지만 민자사업에서는 특히 전문가가 절실하다. 하지만 잦은 인사로 인한 담당자 교체 등 전문가 양성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 민간 기업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전문가로 드림 팀을 구성해 협상에 나서는데 공무원들은 책임감이나 절실함 없이 협상에 나선다면 백 번 나서 봐야 백 번 될 것이 뻔하다.

광주시를 비롯해 자치단체들은 지금부터라도 서울처럼 민자사업 팀을 운영하는 등 전문가 양성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협상 실패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 신안 해저 유물 귀환 문화 인프라 확충 계기로

국립광주박물관 건립의 계기가 됐던 ‘신안선(新安船)’ 유물이 발굴 4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최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중인 ‘신안 도자기’ 1만 7000여 점을 이달 말까지 이관받아 광주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 도자기는 1976년 신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신안선(무역선)에 실려 있던 고려와 중국 원나라의 유물이다. 이 해저 유물 발굴을 계기로 1978년 광주에 국립박물관이 탄생했다. 중앙박물관은 현재 2만 7000여 점의 신안선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번에 이관하는 도자기는 그 중 일부다. 나머지 해저 문화재도 오는 2020년까지 광주로 옮겨질 예정이다.

광주로 오는 도자기 대부분은 세계적 명품으로 분류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빼어나다고 한다. 사자 모양 연적, 술 모양 항로 등은 국보급 문화재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전남 지역에서 발굴됐음에도 소장지는 국립중앙박물관인 까닭에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그 진면목을 볼 수 없어 안타까워했다. 이번에 지역민이 신안 도자기 귀환을 바라는 것도 그 때문이다.

광주박물관은 이들 귀환 도자기를 바탕으로 ‘아시아 도자 문화 아카이브’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무등산 충효동 분청사기와 강진 고려청자 등을 깨어 광주를 ‘아시아 도자 문화 실력 로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중장기발전방안 용역도 추진 중이다.

광주박물관은 이제 신안 도자기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권 문화 교류의 지문이 새겨진 신안 도자기를 문화 도시의 명품 컬렉션으로 끌어올리는 일은 지역에 있는 박물관의 소임이기도 하다. 광주박물관은 또한 이들 계기로 전국의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특화 박물관으로 도약해야 할 것이다.

## 종교칼럼

### 우리 스님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우리 스님이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한쪽에 환한 한복을 차려 입은 보살님들이 앉아 있었다. 아마도 먼저 와서 연습을 마친 연합합창단인가 보다. 그 중 몇 분이 나를 보자 반갑게 외쳤다.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절에서 본 기억이 있는 얼굴들이었다. 보살님들과 반갑게 눈인사를 나눈 뒤에 자리에 앉으며 옆 자리의 스님에게 “제 범명이 우리입니다”라고 말하며 웃었다. 절 밖에서 만나니 반가운 마음이 더했다. 그것도 광주 지역 여러 절의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이는 행사장이다 보니 반가움은 더했다. 지난 성도제일 연합법회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살면서 의식하지도 못하게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쓴다. ‘우리 가족’,

‘우리 아들’, ‘우리 가게’, ‘우리 절’... 이렇게 ‘우리’라는 말이 앞에 붙은 것들은 한결같이 우리들 마음 속에 그에 상응하는 감을 가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방은 역시 ‘가족’이라는 이름의 방이다. 마음 속에 가족이라는 방이 있으면, 가족이란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다. 바깥일에 피곤하고 지치면 어서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하나 같이 ‘역시 집이 최고야!’라며 긴장을 풀고 편하게 늘어진다. 어디 ‘가족’뿐인가. ‘학교’, ‘회사’, ‘국가’ 등이 다 마찬가지다. 바로 공동체다. 그러나 공동체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인간은 무리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에 관한 뜻의 시구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인간은 뭐든 함께 할 때 행복을 느낀다. 달리 이유는 없다. 인간의 유전자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공동체를 위한 방이 존재하는 이유다. 덕분에 호모 사피엔스는 살아남았고 오늘날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

1969년이니 겨우 50년 밖에 되지 않은 과거였다. 당시 40대였던 고 김대중 씨는 여의도에 온집단 백만 대중 앞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했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유튜브로 들어간다. 카메라 앞에서 옆집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편하게 이야기한다. 과거 광장으로 온집단 백만 대중들은 이제 빨방이 흩어져 자기 방에서, 카페에서, 혼자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정치인을 접한다. 불과 반세기 만에 공동체가 사라져 버린 듯하다.

종교는 사정이 더하다. 나 홀로 신도는 물론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이 태반이다. 이래저래 사찰에 대한 공동체 의식은 희미해지고 있다. 심지어 뒤편 돈으로 대신할 수 있는 세상이니, 급기야 신행 활동도 돈으로 대신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행사장에서 나를 보며 “우리 스님이다”라고 외치던 보살님들의 반가운 표정에서, 그리고 법당으로 가는 가파른 돌계단을 힘겹게 오르는 노보살님의 구부정한 뒷모습에서, 분명하게 확인한다. 우리 속의 공동체는 여전히 견재하다. 무리 지으려는 인간의 본능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다만 세상이 우리들을 흩어지게 할 뿐이다. 아니다. 세상은 아무런 죄가 없다. 그저 내 맘대로, 내 잘난 멋에 취해서, 나는 남과 다르다는 생각에, 남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우리들 각자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드라마를 보고, 혼자 술을 마실 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들이 숲 속에 함께 모여 수행하면서 수행 공동체인 승가(sangha)가 생겼다. 우기와 건기가 분명한 인도의 기후에서 우기 중에 탁발이 힘들어지자 자연스럽게 한 곳에 일정 기간 머무르는 안거 제도가 생겨났다. 당연히 최소한의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생겨나서 오늘날의 절이 되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먼저 수행이 있고 가람이 만들어진 것이다. 절은 수행 공동체다. 절에 가는 이유는 함께 모여 수행하기 위함이다.

성도제일 행사의 마지막은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어 내려가는 발원문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불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발원문을 읽었다. 생면부지의 사람도 광주 지역의 불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불자’가 되었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습관처럼 말할 때마다 ‘우리’, ‘우리’ 라고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쓰고 보니 다 쓸데없는 잡설이다. 한 마디면 된다. “안녕하세요! 우리 스님, 중현입니다.”

## 기고

###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의의와 과제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용호상박(龍虎相搏), 호시탐탐(虎視眈眈). 이 모두 호랑이와 연관된 속담이나 사자성어들이다. 우리나라에는 유독 호랑이와 연관된 이야기나 속담, 그림들이 많다.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도 ‘호돌이’였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호랑이가 많이 서식했기 때문이다.

목포 유달초등학교에는 호랑이 박제가 전시되어 있다. 1908년 영광 불갑산에서 잡은 호랑이를 일본인이 사들여 박제한 후 그들이 다녔던 학교에 기증한 것이다. 우리나라 호랑이는 일제 강점기에

무차별 포획되어 사라졌지만 그 마지막 모습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해발 고도 516m로 그리 높지 않은 불갑산에 호랑이가 서식할 수 있었던 것은 시베리아에서 백두대간, 호남정맥, 영산기맥을 따라 국경과 장벽이 없이 먹이사냥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불갑산 일원의 생태 환경이 우수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불갑산 일원의 자연 자원 조사에서는 1044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며 수달, 구렁이, 새매, 진노랑 상사화 등 다양한 멸종 위기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갑산 기슭에는 천연기념물 제112호로 지정된 참치나무의 군락지가 위치하고, 마라나타가 백제에 불교를 전래한 뒤 최초로 세운 것으로 알려진 불갑사도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0일 전라남도는 불갑산 자연생태 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불갑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고시했다. 불갑산은 자연 생태계가 우수하고 자연경관과 문화 경관이 조화를 이루어 오래

전부터 도립공원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곳이다.

이번 도립공원 지정으로 전라남도도는 조계산, 두륜산, 천관산, 무안 갯벌, 신안 갯벌, 벌교 갯벌에 이어서 7개의 도립공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동안 전라남도도는 다양한 자연 생태계와 우수한 자연경관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에 역점을 기울여왔다. 전남의 보호 지역은 국립공원이 6개소, 유네스코(UNESCO) 생물권 보전 지역이 2개소, 생태·경관 보전 지역이 5개소, 습지 보호 지역이 10개소, 특정 도서가 104 개소 등으로 지정 수나 면적에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자연 공원내에 사유지가 많이 지정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불갑산 도립공원내에도 사찰림을 포함한 사유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과제 또한 적지 않다. 도립공원은 자연 자원을 잘 보전하고 동시에 생태·문화탐방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지정 취지가 있다. 그런 만큼 도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이용을 위

해 탐방 안내소, 탐방로, 생태·문화 체험 시설 등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영광군은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으로 지역의 새로운 브랜드 하나를 더 얻게 되었다. 앞으로 불갑산 자연 생태 자원의 가치를 높여 생태·문화관광 명소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백수 해안 도로와 올해 개통 예정인 칠산대교 등 해안권의 관광 자원과 불갑산을 중심으로 한 산악 자원을 서로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민 자치 시대의 도래에 맞춰 기반 정비 및 관리, 탐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의 과정에 주민 참여를 촉진해 지역의 자긍심 향상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쉬운 점은 불갑산이 영광군과 함평군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군 일원만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도립공원 지정 및 운영의 긍정적 효과가 확산되어 머지않은 시기에 함평군 일원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 無等鼓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연초부터 많은 언론에서는 관련 특집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풀어 왔던 궁금중 하나. 100년 전 3·1운동 당시 한반도 전역에 메아리쳤던 함성은 ‘대한 독립 만세’였을까 아니면 ‘조선 독립 만세’였을까?

의문의 출발점은 독립선언서다. “오동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인고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포했으니 당연히

### ‘대한 독립 만세’?

“조선 독립 만세”라 하지 않았을까? 물론 경술국치 당시 국호가

대한제국이니 ‘대한 독립 만세’라 외쳤을 수도 있었지만, ‘조선 독립 만세’란 국호는 ‘독립 운동사’ 같은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당시 전남 광주에서는 “3월10일 오후 3시 광주전 부동교 아래 장터에 수피야학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1000명이 넘는 군중이 모여 태극기와 독립 선언서를 받아들이고 ‘조선 독립 만세’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1926년 6·10만세 운동은 다음 동아일보 호의 기사 역시 ‘합성 수십 인이 도선00만세를 불렀다’고 보도

하고 있다.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때 도 구호는 ‘조선 독립 만세’였다.

3·1운동은 유례가 없는 전 민족적인 혁명이었다. 10년에 걸친 일제의 강압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조선인은 조선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겠다는 민족적 선언이었고 이를 가로막는 일제에 대한 항전의 표기였다. 민중은 각성하고 성장했다.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만 회자되던 공화주의를 받아들이고 공우하여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때 민중을

몽치게 한 힘은 ‘조선 독립 만세’라 하는 구호였을 것이다.

해마다 3·1절이 되면 전국에서 만세 운동 재현 행사가 열린다. 함성은 언제 어디서나 ‘조선 독립 만세’가 아닌 ‘대한 독립 만세’다. 이는 광복 이후 남북이 분단되고 국호를 남북은 ‘대한민국’, 북쪽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달리 정했던 탓도 있을 게다. 남북이 함께 기획하고 있는 3·1운동 100주년 공동 기념행사에서도 남북이 외치는 구호는 다를 것이다. 이념이 개입되면 역사는 힘을 잃는다. 독립 운동의 역사는 여전히 아프다.

/\*주최권 편집1부장·부국장 jkyou@

<b>光 州 日 報</b>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FAX 222-8005)	문 화 부 (FAX 222-0515)	문 화 사 업 국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여 론 채 투 부 220-0652	업 무 국 220-0551
경 처 부 220-0632	여 론 채 투 부 220-0692	예 향 부 220-0693	업 무 국 220-0195
정 처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업 무 국 02-773-9331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업 무 국 02-773-9335
전 남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2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